

소통하는 다목적체육시설 조성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 준공... 장애인 등 누구나 안전한 이용 가능

장애인과 어린이, 노약자 등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이 전주에 들어섰다. 전주시는 국민체육진흥기금 50억원 등 총 사업비 90억을 투입, 송천동 전라북도어린이회관 인근 옛 톨볼링장 부지(덕진구 송천동1가 186번지 일원)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울려 소통하는 다목적체육시설인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를 조성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전국에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된 곳은 전주시를 포함해 단 3곳뿐이다.

이에 따라, 평소 마땅한 공간이 없어 체육활동을 즐기려 어려웠던 전주지역 장애인과 송천동과 팔복동, 동산동, 덕진동 등 전주 북부권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선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에 따르면,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손님맞이를 위한 막바지 주변 환경 정비를 거쳐 오는 10일 개관식을 가질 예정이며, 시는 이용프로그램 개발 등 사전 준비 절차를 거쳐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체육관 운영에 나설 방침이다.

전주 어울림 국민체육센터는 지하

층, 지상2층 연면적 4,528㎡ 규모로 지어졌으며 건물 1층에는 톨볼링장(8레인)이, 2층에는 다목적체육관과 동아리실, 체력단련실, 운동처방실, 다목적홀 등이 들어선다.

특히, 시는 목재와 자연석 등 친환경적 소재를 적극 이용하고 건물 2층에는 길이 70미터, 폭 4미터의 대규모 잔디 마당도 조성하는 등 자연친화 공간을 배치했다.

뿐만 아니라, 공용홀에는 카페테리아를 마련, 체육관 이용객뿐 아니라 동반가족들을 위한 휴게공간으로 제공기로 했다.

향후 공용홀에 조성될 카페테리아는 전주지역 사회·복지단체에 임대 등의 형식을 통해 운영될 예정이어서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만들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황권주 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어울림 국민체육센터가 조성되면 그간 전용공간이 없어 스포츠활동을 즐기려 어려웠던 장애인은 물론, 남녀노소 누구나 여가시간을 활용해 건강하게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고 건강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체육시설 조성과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지난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신동빈, 2심서 집행유예 석방

재판부 "박근혜에 명시적 청탁 증거 부족"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경영 현안 청탁과 관련해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지난 5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월13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아 법정 구속됐던 신 회장은 8개월 가까이 만에 풀려나게 됐다. 이와 함께 신 회장 측이 항소심에서 신청한 보석 청구는 석방으로 인해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 재취득과 관련해 묵시적인 부당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당시 명시적인 부당한 청탁을 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청탁 대상인 면세점 신규 특허 추진과 관련해 대통령 직무집행과 70억원이 그 대가라는 점에 대해 공통의 인식이나 양해가 있었다"며 "신 회장이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대통령 직무 관련 부정 청탁을 한 것은 유죄"라고 밝혔다.

이어 "당시 청탁 대상인 현안이 존재했고 박 전 대통령도 자신이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한과 지위를 가진 점을 잘 알고 있었다"며 "중요 현안을 가진 신 회장에게 이례적으로 K스포츠재단을 지원해달라는 것을 통상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 회장이 박 전 대통령의 지원요구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 관련 대가 교부 요구라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명성이나 신뢰성이 제대로 파악 안 된 신생 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뉴시스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완산구, 직업교육 개강식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는 2018년 여성 취업지원을 위한 하반기 직업교육 개강식을 가진다고 5일 밝혔다.

완산구의 여성직업교육은 사회적 취약계층 여성의 취업과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더 나아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추진되며 하반기에는 정리수납지도사1급, 책놀이지도사2급 2개 과정이 진행된다.

여성 직업능력개발 교육은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에 위탁 운영하며 교육 수료자에게 재료비를 포함한 수강료의 80%를 지원하고 교육 후엔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와 연계해 일자리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한다.

각 교육과정별로 취업전망을 보면 정리수납전문가는 주거·사무 공간 등의 공간별 문제점을 진단해 컨설팅하는 전문가로 각종 기관의 정리·수납도우미 등으로 취업 가능하며, 책놀이지도사 과정은 초중등 방과후 강사, 도서관, 문화센터 등의 강사로 취업 또는 홈스쿨 창업이 가능하다.

완산구는 지난 상반기 교육을 통해 47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이 중 90% 이상이 자격증을 취득해 지역의 여성 사회참여 요량역할을 하고 있다.

최성식 완산구 가족청소년과장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진입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송효철 기자

'땃글공작' 의혹 조현오 구속

法 "혐의 소명·증거인멸 우려" ... 남대문서 구속수감

이명박(MB) 정권 시기 온라인 땃글 등을 통한 여론 조작 활동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이 지난 5일 구속됐다.

이날 조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법외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영장 발부 결정에 따라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하고 있던 조 전 청장은 구속수감됐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2년 4월 서울경찰청장과 경

찰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천안함, 구제역, 회맹버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치·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땃글이나 게시물 3만3000건 상당을 작성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명재권 부장판사는 이 중 실제 작성된 땃글 1만2800여건을 확인했다.

경찰은 가·차명 계정이나 해외 인터넷주소(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해 마치 일반 시민인 것처럼 정부·경찰에 우호적 방향으로 글을 작성하도록 한 점이 문제라고 보고 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검거했다.

조 전 청장은 땃글 작성 지시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정치적 목적이 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경찰은 8월 말 온라인 땃글을 통해 여론 조작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전·현직 경찰 간부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던 바 있다.

/뉴시스

안전한 전국·장애인체전을 위해

전북경찰청, 경비·안전활동 종합 치안대책 회의

전북경찰청은 5일 전북경찰청 대회실에서 '제99회 전국체육대회 및 제38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경비, 안전활동을 위한 종합 치안대책 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강인철 전북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치뤄진 이날 회의에서는 완벽한 대테러 경비안전활동을 위한 기능별 추진대책 및 현장지원 계획 토의 등 전반적인 준비사항을 점검했다.

지난 5일 경찰에 따르면, 대회 개

폐회식, 경기장, 성화봉송 등 총 1,579개 경비대상에 연인원 23,500여 명을 동원하는 등 전 경찰력을 총집중하여 경비체제를 확립하고 민생치안에 공백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등 경비중립상황실을 운영, 빈틈 없는 안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강인철 청장은 "내테러 전담팀을 배치해 경찰 안전활동에 모든 치안력을 집중 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국 지자체 간부공무원들 전주지역 복지시설 봉사활동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간부공무원 20명이 봉사를 통해 전주지역 복지시설에 사랑을 전달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개발원 연수생 8기 5급승진과제과정 정한열 외 19명 사무관들은 전주시 삼천동에 위치한 노인복지시설인 사랑과 평화의집을 방문해 자원봉사활동을 했다.

이날 20명의 사무관들은 복지시설 주변의 잡초를 제거하는 등 환경정리와 세탁봉사 등을 통해 어르신들 섬기고 화창지와 두우 등 20여 만원 상당의 위문품을 전달했다./송효철 기자

'안전사고 꿈쩍마' ... 전주시, 안전신문고 홍보

국제안전도시로 인증받은 전주시가 시민들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앞장 서고 있다.

시는 지난 4일 중앙동 오거리 광장에서 전주시 안전보안관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71차 안전점검의 날 안전문화 캠페인'을 했다고 밝혔다.

안전점검의 날은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 위해요소 제거에 대한 전 국민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매월 4일로 지정·운영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전주 종패지관과 중앙시장 일대를 돌며 거리를 지나는 시민들을 상대로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 사용 방법을 안내했다.

또, 가을 나들이철을 맞아 안전신문고 앱을 활용해 다중이용시설 등 사람이 많은 곳의 안전 위해요소를 적극 신고할 수 있도록 홍보에 주력했다.

이창수 시 안전총괄팀장은 이날 "전주시가 국제안전도시로서 시민들이 수준 높은 안전문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안전문화 캠페인 활성화에 힘쓰겠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도시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전주시 안전보안관 여러분의 적극적인 활동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Jeonju Crime Victim Support Center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당신이 웃는 내일을 희망합니다"

국번없이
1577-1295

전화상담, 사이버상담, 방문상담, 예약상담 등
매주 월요일 ~ 금요일 (연말연시와 공휴일 제외)
상담시간 : 10:00~17:00

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범죄피해의 고통을 상담지원, 법률, 의료, 환경개선 지원 등을 통해 범죄가 있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전주지방경찰청
(사)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 (063) 276-8804, 8828
전주시 덕진구 시평로 25(덕진동 1가) 전주지방경찰청 신관 152호
*홈페이지 : www.jjvs.or.kr *전자우편 : jjvs@hanmail.net